

4. 필리핀공동체 소식("Simbang Gabi")

"Simbang Gabi(심방가비)"는?

필리핀의 전통 종교 행사로 12월 16일부터 9일 동안 매일 새벽미사를 드리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는 필리핀에서만 행해지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한국어로는 밤의 미사를 뜻하며, 스페인어로는 수탉의 미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일찍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9일 전부터 새벽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성대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필리핀공동체는 이 심방가비 행사를 2015년 12월 15일에 골롬반외방선교회 성당에서 미사와 함께 9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5. 기부금영수증 안내

201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해주신 기부금을 확인하여 **2016년 기부금영수증을 1월 8일에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가족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후원회원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재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전화 : 924-9970/1)

6. 후원금 사용내역에 관하여

후원금 및 지정기탁금 등을 보내주신 많은 후원회원님들의 도움으로 2015년 한 해에도 이주사목위원회 컴퓨터를 이용하는 산재환자들, 다문화여성들,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과 온정의 손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후원해 주신 후원금에 대한 2015년 후원금 전체 사용 내역서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주시목위원회 후원회원 여러분!!

베를이 주신 따뜻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다 크신 은총으로 되돌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복된 2016년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저는 유난히 잠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 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님께서서는 아침마다 저를 깨우기 위해 전쟁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군대에 갈 때도 부모님의 걱정은 '저 잠보가 과연 규칙적인 군생활을 잘 따라 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도 고참들한테 맞아죽고 싶지는 않아서 아침마다 별떡별떡 기상하며 제대는 무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나니 다시 예전에 잠 많던 습관이 되돌아왔습니다. 제대 후 한동안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백수로 지내던 터라 매일 아침마다 원 없이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접어두었던 사제직의 꿈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신학교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입시 학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집에서 노량진까지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었고, 다니려는 종합반학원 수업을 위해서는 새벽 일찍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서는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 스스로도 잠 때문에 고생했던 학창시절이 떠올라 이 공부를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원 첫날, 저는 첫 알람소리에 바로 잠을 깰 수 있었고, 어머니 몰래 밥통과 냉장고를 뒤져 도시락을 싸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주 두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머니도 놀라시고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넌 아침잠 때문에 신학교 합격한다 해도 걱정이었는데, 이제 쫓~금 희망이 보인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저 스스로에게 가장 놀랐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한 강한 열망이 이렇게 오랜 습관과 체질마저 180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체험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이 강렬한 열망이 되어, 게으른 잠보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발목을 붙잡으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온 나의 부족함들을 털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 부족함들이 악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새해에는 그보다 더 나아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한 해를 밝게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겠지요. 제게 신학교 입학에 대한 열망이 내면의 변화였고, 그것이 이른 아침의 부지런함이라는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 혹시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에 앞서 필요한 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찾아내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보면 어떨까요?

복음말씀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내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앞뒤 순서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에 빗대어 보아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좋은 새 포도주로 삼아,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한 해 동안 온전히 잘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새 부대로 거듭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시메온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월 후원미사는 15일,

3월 후원미사는 21일,

4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5년 12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4명입니다. 그 중 필리핀 환자(남, 37세, 미혼)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5년에 1월에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하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목에 멍울이 잡혀 인근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진단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7월 1일에 이주사목위원회 이주노동자상담실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7월 2일 입원하여 조직 검사한 결과 임파선 종양암 4기와 B형간염보균자로 항암치료(6차)와 간염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입국하고 얼마 일을 하지 못하고 발병하여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도움과 이주사목위원회 후원금 일부, 필리핀공동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섯 차례의 항암치료가 12월 28일에 끝나고 한 달 후 CT스캔으로 완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본국에 있는 딸의 질병과 수술 소식을 듣고 귀국하기를 원했습니다.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치료는 어려울 것 같아 담당의사는 귀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필리핀으로 귀국한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내역과 진단서 및 영상촬영본 등을 발급받아 2016년 1월 1일에 출국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본국에서 호전되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성탄행사



성탄케익 만들기